복음과 율법 7강. 신자의 정체성 :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롬 6:1-14)

오늘 살필 것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두셨다면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4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은 무엇이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은 무엇일까요? 그건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라고 하여 '부활 후의 생명' 을 말합니다. 그걸 5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새 생명 = 부활 생명

그렇다면 부활 후에 생명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더 이상 율법 아래 계시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1]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에서 나셨고 율법 아래[2], 죄와 사망의 현실에 오셨습니다.
이 말에는 아주 무거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는 죄가 없으신데 육신을 입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죄는 말로 표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 "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만물 가운데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8명의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았으면 '깨끗해졌다, 완전해졌다'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나 다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재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온 인류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도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만족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와 반역의 역사에 들어오신 초림은 죄와 관련해 오셨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 아래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계시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발생하죠?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신 모든 것이 신자의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궁극적 운명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나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존재, 영광스런 신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 대해 로마서 6장 11절에는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죄에 대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우린 이미 알죠?** 그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나의 밖에서 일어난 일, 즉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일을 통해 신자는 죄에 대해 죽은 것은 계속 살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옛사람, 그러니까 인간은 뭘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가는 본질, 속성을 갖고 있죠? 심지어 종교적으로 신앙을 가져도 그 신앙조차 자신의 육적 욕심을 위한 것인 것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본질과 실력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에베소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난 자'로 그전에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을 따르던 삶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세 번에 걸쳐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목적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건 마치 가끔 그런 표현을 했죠? 죽은 나무에는 싹도, 꽃도,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마치 죽은 나무 같은 우리를 살려 이젠 싹도, 꽃도, 열매도 맺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현실에서 우린 향기 나는 꽃도, 탐스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좌절을 겪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 로마서 6장 11절에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나요?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막 안 되는데 되 내어 심리적으로 자기 최면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라'는 말은 헬라어는 '로기조마이(λογίζομαι)'로 용례 가운데 'count'로 '계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 이 연합을 통해 신학적으로는 '전가'(Imputation)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일어난 일,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전부 주어진 겁니다. 이를**

계산하듯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고 하신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가상의 인물 두 사람 얘기를 했죠? 의지가 강한 A장로와 의지가 박약한 B집사,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다면 두 사람은 자기 의지에 매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건 결국 자기 행위와 공로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죽고 다시 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예수처럼 나를 여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 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건 때로 범죄 하여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광스러운 신분은 변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는 이런 고백을 갖고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비록 죄가 내 죽을 몸에 남아서 내가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죄와 싸워야겠지만 나는 죄의 지배,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죄가 다시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죄는 나의 구원과 나의 궁극적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이 가능한 것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핵심이 있다면 종교는 종교를 만든 교조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복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운명을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은 안전한 겁니다.

질문.

1.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두신 목적에 대해 4절에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2. 새 생명으로 행한다는 것은 부활 후의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답: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계시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그렇습니다.

3. 그러나 현실적 감각으로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긴다'는 말이 '로기조마이'로 '계산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살면서 범죄 하여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2:6)

2)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4:4)